

큰스님 수행한담

삶을 힘들게 하죠”



72년 4월 용주사에서 봉행된 기사불사 및 보살계 회향법회를 마치고 전강스님(왼쪽에서 두번째)과 함께 앉아 있는 정무스님(왼쪽에서 첫번째).

법담이 있고 남쪽 요사채는 텅 비어 있는데 북쪽 요사채에는 대처승의 신도가 예복도 안하고 법회도 안 열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추운 겨울 바람을 연탄난로 하나로 의지하며 혼자 밥을 지어 먹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러다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아 먹고 다음날 새벽부터 도량식을 돌았습니다. 그저 절 마당을 도는 것이 아니라 시내를 한바퀴 도는 그런 도량식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석달을 계속하니 신도들이 조

도량이 된 것이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 하더군요. 이유가 어찌됐든 혼란스럽던 도량에서 여법한 법회도 열리고 아침 저녁으로 염불소리가 울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잘 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간 고생이 얼마나 많았나"며 부끄러워 하는 신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쳐서 매진하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절은 절인 채 늘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주지를 맡아 관리하던 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도 늘 그렇게 법다운 채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개인 개인이 그 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쓰느냐 법을 법으로 보는 눈이

“이 순간 나의 참마음 의심 말고 이 순간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참마음 내는 수행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마다 어려움이 따르고 그 어려움에 처해 스스로 나약해 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진정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진심을 지냈다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마음을 내며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相)을 내지 말라는 것은 진심의 자리를 여여(如如)하게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을 내는 사람은 진심의 그림자에 얽매인 것입니다.

나의 은사인 전강(田岡 1898~1975) 스님은 상을 내는 마음이 수행자의 가장 큰 장애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어느날 한 스님이 전강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대화가 있었고 그 스님은 입을 다물고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찾아 온 스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견성을 했습니다. 제가 견성을 못한 주제에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지옥을 갈 것입니다.”

“그래? 내가 견성을 했다면 내가 지옥

매사에 진심을 내보이는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심을 내어 수행하고 진심으로 일하고 생활하고 그 상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생애에 다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욕심을 부릴 수도 없고 욕심 낸다고 될 일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저 이 순간 나의 참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이 순간 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허세와 허욕을 경계하고 마침내 허세다 진심이다 라는 구별마저 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의 나'에게 충실하는 것이 불성의 여여한 모습을 구현하는 길일 뿐입니다.

71년부터 12년간 화성 용주사 주지를 하며 <부모은중경> 강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세상에 부모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없듯 부모님의 은혜를 지버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효는 백가지 행동의 근본이란 가르침이 굳이 유학의 도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도리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부모은중경>에도 아버지의 은혜를 다 갚기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일은 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 어가에 어버이를 업고 수미산을 5백생동안 오르내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대목이 <부모은중경>에 나옵니다. 맞년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이 대목을 강의하면 대부분 눈물을 흘렸습니.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 진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역시 진심이 가려진 시류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참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의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됩니다. 참마음의 자리를 찾아 사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 뿐 아니라 나라와 스승과 더불어 사는 이웃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삼일 뒤는 마음은 천년의 보배고 백년을 탐낸 마음은 하루 아침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을 진심으로 뛰는다면 그 한순간은 진심으로 살게 됩니다. 내게 갖춰진 참마음, 바로 불성 그 자체로 여여한 마음 자리를 찾는 일에서 오늘의 경계 위기와 각박해진 시류를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임연태 기자

와 경전



39

자타카



장 휘옥 동국대 강사

대부분 중고등학교 시절 영어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번쯤은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나도 대학 1학년 시절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울 때 일본어 독해를 위해 산 책이 <자타카>다. 그때는 불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별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자타카>는 나에게 단지 일본어 교재로서 교육적인 동화책에 불과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자타카>가 나와 불교의 인연을 맺게한 보이지 않는 끈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부처님 전생 인연설화 547편

시대 초월한 인과법 '귀한 교훈'

부처님 전생 인연설화 547편 시대 초월한 인과법 '귀한 교훈'

설화이다. <자타카>의 소재로는 주로 고대 인도 민중들 사이에 널리 전해지고 있던 설화나 우화가 중심이 되었고,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은 5세기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교가 아시아지역으로 전파됨에 따라 <자타카>는 중앙아시아 각국을 비롯하여, 자비의 불보도 르섬, 중국의 용문석굴 등에 조상(彫像)과 벽화의 소재로 많이 제공되었다.

<자타카>에 수록된 모든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현재의 이야기'로서, 부처님이 과거세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 인연을 살리고, 이어 <자타카>의 중심내용인 '과거세 이야기'를 설한다. 여기서 부처님의 전신인 보살은 과거 영겁의 세월동안 생을 되풀이하며 살아온 인연의 끈이 되어

왕이 미칠 것이니 그냥 돌려보내라는 사슴의 말을 따랐다. 이후 왕은 아무도 동물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명을 내렸고, 사슴들이 곡물을 마구 먹어치워도 저지할 수 없게 됐다. 참다못한 농부들이 왕을 찾아가 호소했지만 왕은 왕국이 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슴과의 약속은 지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안 황금색 사슴은 사슴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 곡물을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된다고 주의시키고, 농부들에게는 자신들의 전답에 표시를 하게 했다. 그후로 사슴들은 표시가 되어있는 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부처님은 이상의 설법을 마치신 후, 비구들에게 제바닷다가 은혜를 모르는 것은 이와 같이 현세에만 한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대부호의 아들이 지금 제바닷다고, 왕은 지금의 아난이며, 황금색 사슴은 바로 부처님 자신이라고 했다. 사리사유에 눈이 어두워 위험에서 구해준 은혜조차 지버리는 배은망덕함은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인과법에 따른 악업의 과보도 시대에 상관없이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난국 이기려면 眞心으로 사는법 배워야” 相 내는 마음이 수행자의 가장 큰 장애

금씩 달라졌습니다. “정말 스님다운 스님이 왔다”는 말이 전해진다고 안악국의 주인이 말해 주더군요. 경찰들이 새벽에 주인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말렸지만 “새마을 운동이 한창인데 누가 늦잠을 자느냐. 어서어서 일어나 일을 하자고 이렇게 딱딱을 치는 것이니 말리지 말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서너번 말리던 경찰도 나중에는 아무 말을 않더군요. 2년간을 그렇게 새벽 도량식을 모시는 가운데 포교당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 가을에 포교당 위안에 선 빛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가을에 벚꽃이라니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물론 기온이 따뜻해서 철모르고 꽃을 피었던 것이지만 많은 신도들이 물려들어 “이제 포교당은 부처님 법이 살아 있는

없이 미혹을 해매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부터 진심을 내어야 합니다. 허세와 허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진심으로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서 능히 그 일을 이루어 내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거듭되는 환란을 겪어 왔습니다. 외부의 침탈에 짓밟히면서도 곳곳에 건더 온 우리 민족이 요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거라는 생각과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심을 내는데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나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을 가졌다.”

전강스님은 견성을 했노라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을 가도 천번은 갈 미혹이라는 것을 타이르신 겁니다. 그러니 그 스님은 입다물고 도망칠 수 밖에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전강스님은 한때 도봉산 쌍봉사에서 선방을 열었는데 그 선방에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했습니다. 사부대중 20여 명이 선방이 앉아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두를 들고 앉아 정진하는 데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그 동안과 한철 내내 법문을 하시는 진지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듯 걸림이 없이 문을 활짝 열고 사셨던 전강스님은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삼보종할 통도사, 법보종할 해인사, 승보종할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고려대장경 I, II, 불국사·석굴암 I, II. 불교전통의식, 의례. 예불, 발우공양. 불교전통음악. 한국사찰의 꽃문. 10개 1SET \*카드결제 가능.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btv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